

니하이 시어터 2014년 초연 '데드독' 온다

가장 창의적·혁신적 극단 셰퍼드 감독의 야심작으로 LG아트센터 24일까지 공연

'니하이 시어터(Knee-high Theatre)'는 1980년 영국 남서부 해안 콘월 지방의 시골 학교 교사의 연극 워크숍으로 출발했다.

창단 당시 직업 배우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단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학생과 농부 간판제작공, 전기공, 동네 카페의 기타리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무릎 높이(knee-high)를 의미하는 극단의 이름처럼 변변한 공연장이 없어도 개의치 않고 마을회관이나 천막, 숲속 호숫가, 절벽 꼭대기나 채석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연을 했다. 이후 세계로 뻗어나가 영국뿐 아니라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극단으로 통한다.

'니하이 시어터가 2014년 초연한 신작 '데드독'이 한국에 왔다.

니하이시어터의 창립자이자 예술 감독인 마이크 셰퍼드(68)는 21일 오후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허린 시절 바닷가인 콘월에서 살면서 먼 곳을 바라보며 여행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내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선보이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다른 극단과 달리 극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많이 공연한다. 숲이든 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라든지, 오래된 빌딩에서도 공연하고,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것이 극단에서 활기를 불어넣는 듯하다."

처음 방문한 한국에 대해서는 "판타스틱하다"며 "내가 사는 곳과 굉장히 다르다. 고층 빌딩 사이를 지나가다 발견한 시장에서 음식이 좋게 모여 오징어를 먹고 있는 걸 발견하고 놀라기도 했다"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햇빛이 드는 청계천은 예뻐



셰퍼드 감독은 니하이 시어터 버전의 '데드독'은 재탄생 된 것으로 젊은 문화의 상징은 펑크요소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다. 비가 주룩 주룩 내릴 때 가로등 사이를 지나가니 라블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 주인공이 된 것 같기도 했다."

한 때 전문 배우가 꿈이었던 셰퍼드 감독은 "오디션을 볼 때마다 떨어져서 남의 입맛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스스로 창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극단을 창단했다."

'데드독'은 브레히트의 '서편제 오페라'의 원작인 영국 극작가 존 게이의 거지 오페라(The Beggar's Opera)가 바탕이다. 1728년 초연된 이 작품은 당시 영국 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 런던 하층민의 삶을 익살스럽게 묘사해 주목 받았다.

18세기 최고의 히트작이자 웨스트엔드 뮤지컬의 기원이 된 작품으로 통한다. 288년이 흐른 2014년 니하이 시어터는 이 이야기의 기본 구조만 남겨둔 채 21세기 버전의 감각적인 뮤지컬로 재탄생시켰다.

교활한 사냥가 '피침'이 마을의 선량한 시장인 '뚝맨'이 자신의 검은 뒷거래를 파헤치려고 하자 청부살인업자 '백스'를 고용하면서 벌어지는 엇비슷한 이야기

다. 게이와 브레히트의 작품처럼 '데드독' 역시 현대 사회의 어둡고 뒤러린 이면을 그리면서도 유머와 위트를 잃지 않는다. 특히 살인청부업자, 부패한 정치인파 경찰관, 현대판 로빈 후드 비리를 저지르는 기업가 등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캐릭터들을 등장시킨다. 영국 전통 인형극 '번치와 주디'를 연상시키는 인형들의 익살스러움도 있다.

셰퍼드 감독은 니하이 시어터 버전의 거지 오페라가 "고전의 새로운 버전이 아니라 재탄생했다"고 강조했다. '데드독'의 영어 원제목 '여행 가방 속의 죽은 개...'라고 사랑 노래를 불인 이유이기도 하다. 도시에 떠도는 도시전설에서 따온 이 제목은 젊은 문화의 상징인 펑크요소가 다분하다.

니하이 시어터는 모든 배우들이 연기와 노래, 춤과 악기 연주에 능하다. 라이브 음악을 기본으로 하는 뮤지컬 시어터이기도 하다. '데드독' 역시 배우들이 연기

와 노래, 춤은 물론 악기 연주까지 감당하는 '악터 뮤지션 뮤지컬'이다.

스테프들이 쟁쟁하다. 셰퍼드가 연출을 맡고 영국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RSC), 내셔널 시어터와 작업하며 필력을 떨치고 있는 작가 칼 그로즈가 극본을 썼다. 또 영국에서 각광받는 차세대 자휘자 겸 작곡가로 2006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유 카르멘 에카발라'의 음악 감독 찰스 헤이즐우드도 넘버를 만들었다.

인무는 '백조의 호수'의 안무가 매튜 본의 무용단 '뉴 어드벤처스'의 창단 멤버이자 부예술감독이기도 한 에타 머핏이 맡았다. 다양한 협업을 즐기는 셰퍼드는 "세계 어느 누구에게 묻지 않겠다"고 웃었다.

'데드독'의 주인공인 맥스는 에드 휴즈가 맡는다. 이날부터 24일까지 LG아트센터, 협력 주한영국문화원 영어 공연 한글 자막, 러닝타임 2시간30분(인터미션 20분), 4만~8만원 LG아트센터. 02-2005-0114

/정해은기자

모악산 진달래 화전축제 24일 개최

우리의 세시풍속인 화전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제16회 모악산 진달래 화전 축제가 오는 24일 완주군 모악산 대원사 일원에서 열린다.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한 모악산에서 봄을 담은 진달래의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할 무렵 개최되는 모악산 진달래 화전 축제는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특히 화전을 부치고 나누어 먹는 화전 만들기를 비롯하여 화전전시, 풍물놀이, 전국 그림그리기 대회, 글짓기대회 등 화전을 주제로 조상들의 지혜와 나눔의 미덕이 담긴 세시풍속 체험의 장이 마련된다.

이날 행사장에는 지난 해 그림그리기대회 입상작이 전시되며, 대원사 앞마당에서는 화전을 안주삼아 막걸리 한사발을 곁들이는 특별한 경험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모악산 진달래화전축제는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림그리기대회, 글짓기 대회, 모바일 삼행시짓기대회 등의 경연이 열린다.

경연에는 전북도지사상, 전북도교육감상, 완주군수상, 전주시장상, 전주교육장상, 완주교육장상, 제천위원장상 등이 수여된다. 모악산진달래화전축제 조직위원장인 "우리 선조들의 세시풍속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모악산진달래화전축제를 준비했다"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이중복기자



무주군이 개최하는 '봄과 여름사이 콘서트' 공연 모습

무주에서 즐기는 간절기 콘서트

IC만남의 광장·반디랜드서 예술동호회원들 공연

무주군은 4월 23일과 5월 14일, 그리고 28일에 무주 IC만남의 광장과 반디랜드에서 "봄과 여름사이 콘서트"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사)무주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회장 이정숙) 주관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4월 23일(토요일, 12:00~14:00) 무주 IC 만남의 광장에서는 색소폰 동호회 칠연골 메리디안클럽과 행복한 두드림(타악), 무주군청밴드 셋투리의 공연이 펼쳐진다.

5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반디랜드에서 참소리 난타팀과 참새방앗간(색소폰, 셋투리노래), 청소년 댄스팀 공연을 만날 수 있으며, 허브새를 동호회와 함께하는 캔들, 캘리그래피 동호회가 준비한 글씨, 손노리펄트 동호회와 함께 하는 코시지 만들기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난타 체험시간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5월 28일에는 (토요일 14:00~16:00, 반디랜드) 색소폰 동아리 고희소리의 공연과 청소년 댄스 셋투리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가치기 등 전통놀이 체험도 가능하다.

군정 문화관광과 김윤성 문화예술담당관은 "무주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들이 준비한 알찬 공연과 체험들이 무주여행과 생활을 더욱 즐겁게 해줄 것"이라며 "봄과 여름사이 콘서트가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를 풍성하게 하고 동호인들의 역량을 키우는 자리가 되어 사계절 무주 곳곳에서 문화행사를 꽃 피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모두 43개로 해마다 반딧불축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지역행사과 재능기부 무대에서 활약하며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옥을 배경삼은 아름다운 야간경관과 문화공연에 빠지세요

2016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이 고색창연한 한옥을 병풍 삼아 도내 5개 시군 '전주시 정음시, 남원시, 임실군, 고창군'에서 매주 토요일 밤 펼쳐진다. 이들 공연은 도내 전통자원인 한옥경관과 공연 콘텐츠가 융합된 문화관광상품으로 국도·시군비 15억여원을 지원 받았다.

이들 공연 중 올해 처음 무대에 오른 서사무용극 '하늘연인'(전주시)은 조선의 비극적인 왕 단종의 비, 정순왕후의 일생과 사랑 사탕이야기를 그렸다. 이 작품은 서사무용극이라는 장르를 유지하며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 배우들의 목소리와 노래를 담아 극의 이해도를 높이고 미디어퍼시드 영상을 도입해

전주·정음 등 5개 시·군 매주 토요일 밤에

입체감 있는 연출을 꾀한다.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이 공연은 5월 28~10월 8일 오후 8시 정음 권민문화예술관에서 상연된다.

또한 '도리화 귀경가계'(고창군)는 조선 최초 여류명창 진채선과 관소리 이론가 신재효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그린 감성농악이다. 이 공연은 조연 배우들의 차진 방백 연기가 연구수해 귀가 즐겁다.

'꽃이 피었네' 노래로 흥을 더하는 이

공연은 5월 21일~9월 24일 오후 7시 30분 고창읍성 동헌 내아에서 열린다. 그의 판소리(수궁가) 중 용공전체 대목을 중심으로 이해도를 쉽게 재구성한 마당창극 '하늘연인'(전주시)는 5월 21일~10월 15일 전주전통문화관 훈례마당에서 오후 8시 공연된다.

춘향과 몽룡의 싱그러운 사랑을 전통적으로 구성한 창극 '광한루연가'와 아마도 내사랑야(남원시)는 5월 14일~9월 24일 오후 8시 광한루원 수상무대에서, 우연히 마을을 찾은 쓰디에게 마음을 빼앗긴 봉필을 중심으로 마을 풍물굿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그린 창작연희극 '웰컴 투 쟁쟁이골' 하하낙락(임실군)은 5월 7일~9월 24일 필봉문화촌 취락안에

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문화관광 홈페이지 문화관광자원 클릭. /정영수·정해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4월 22일>

▷쥐띠
46년생: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운이다.
60년생: 정신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운.
72년생: 어려움이 생기지만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니 지나친 근심은 거두어라.
84년생: 동기진과 화합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소띠
49년생: 정신이 맑지 않으니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운 운.
61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게 된다.
73년생: 다른 사람과의 불화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85년생: 자신도 모르게 주장이 강해지는 운이니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겠다.

▷호랑이띠
50년생: 하는 일에 막힘이 생기는 운이다.
6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수월하게 진행.
74년생: 주변사람의 도움과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성사.
86년생: 혼자 고민하지 말고 윗 사람의 조언을 구해보라.

▷토끼띠
51년생: 금전거래는 불리하니 하지 말아야 하는 운이다.
63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언행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라.
75년생: 귀인의 협조가 따르는 운이니 혼자서 아남을 명심하라.
87년생: 천운이 따르는 운이다. 중요한 약속이나 일이 있다면 추진.

▷용띠
52년생: 사소한 일에 웬마이치 말고 큰 그림을 그려라.
64년생: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위기의 함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운.
76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운.
88년생: 속으로 생각한 것들은 외부로 표출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뱀띠
53년생: 겉으로는 화려한 듯 하나 실속이 없는 운.
65년생: 자신은 갖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운이다.
77년생: 윗 사람에게 지지해야 잘 풀리는 운이다.
89년생: 정신력이 흐트러지는 운.

▷말띠
54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 부리지 마라.
66년생: 지금은 지속하며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다.
78년생: 주변의 관계를 돈독하게 재정립해야 할 운이다.
90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양띠
55년생: 베풀면 덕이 되어 돌아오는 운이다.
67년생: 지나친 과민성은 부작용을 불러온다.
79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이 흥이한 운.
91년생: 때로는 겸손한 언행이 자기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원숭이띠
55년생: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라.
69년생: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시의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심이 약화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81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놀랄만한 일이 발생하는 운. 92년생: 손윗 사람에게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때다.

▷닭띠
57년생: 지나치게 계산적인 생각으로 인해 기회를 놓칠 염려가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
69년생: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81년생: 고집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막하게 하는 요소가 되니 주의하라.
93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면 좋은 결과.

▷개띠
48년생: 새로운 일을 하거나 변동수를 갖는다.
60년생: 심할면계통에 주의를 요하는 운이니 조심하라.
72년생: 매사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분수를 지키면서 자중해야 하는 운.
84년생: 물에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고 실수가 따르는 운.

▷돼지띠
47년생: 변화를 추구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59년생: 정신이 산만한 운이다.
71년생: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함께 하라.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83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는 운